

## 다윗의 세 가지 여정(성공, 실패, 회개)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하-

사무엘하 24:17-19, 고린도전서 10:8-12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오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활짝 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 예배에 성공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다 이루어 놓고 넘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병들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할 마지막 보루가 교회이며 복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다.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된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빛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복음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윗은 LVTNPO의 모델로 쓰임 받았던 것이다. 복음적인 LVTNPO에서 Leverage(레버리지)란,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러한 복음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교회, 다락방이다. Vessel(베셀)은 믿음의 그릇이며, Transmission(트랜스미션)은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Platform(플랫폼)이란, 복음적인 문화전파의 중심을 의미한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Nobody(노바디)는 네펀의 문화를 능가할 작품을 남기는 남은 자를 의미한다. 세상의 다른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이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문이 된다. 복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Outsourcing(아웃소싱)이란, 모든 나라 모든 족속과 천 년 후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의 모습은 다윗을 인류사에 남는 복음적인 LVTNPO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오늘은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사건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 대부분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엘하 전반부는 다윗 왕이 신앙적으로나 왕으로도 성공한 기록이지만 후반부는 다윗 왕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의 인생 여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 1. 첫 번째에서는 다윗이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보여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한 사람이었고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다. 막내였지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양 떼를 지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도로만 행복했을 때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래의 왕을 찾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하였다.

(2) 다윗은 어린 시절 물뱃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단지 물뱃들로 넘어뜨렸던 것이다. 이는 믿음과 능력이 함께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단순히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의 목동시절은 자신을 서밋인 왕으로 준비시키는 서밋타임이었던 것이다. 양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훈련하며 시도 쓰고, 체력도 단련했던 것이다.

(3)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 왕을 살려주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6장 7절이다. “다윗과 아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가문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4)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말씀 담긴 켈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이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켈을 메어오니라”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메시지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적용될 강단메시지가 붙잡히면 강단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5)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짓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였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가 칭찬 듣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때까지 여러분이 조심히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직장생활이든 어디서든 흑암이 꺾이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7장 5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금, 은 그릇들을 봉헌하였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와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와 성전 공간에 두었더라” 우리 후대가 ‘선배 장로님, 목사님, 교역자, 부모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놓으셨구나’할 정도로 영원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한다. 갈등하고 불신앙, 헛갈려 할 시간이 없다.

② 또한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사용될 돌, 못, 백향목을 준비하였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멸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개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3천 제자를 두고서 후대들이 헌금하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③ 그리고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악기를 만들어 여호와를 찬송케 하였다. “그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와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의 글도 지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 2. 두 번째에서는 다윗 왕의 실패와 죄와 불신앙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빼앗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임신시켰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이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2) 또한 의도적인 살인죄를 범하였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이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보냈다. “야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3) 그리고 다윗은 인구를 계수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떨어진 다윗은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강제로 명령하였다. 이때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3절이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 3. 세 번째는 다윗의 복음적인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사실 복음적인 모습이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갖느냐는 것이다. 죄를 범하거나 실수한 것보다 더 잘못된 태도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속이고, 남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는 정당화하고 피하는 자세이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죄를 짓고 실수한 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지 못한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

(1)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우리아와 밋세바 사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회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2) 또한 인구 계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보겠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언약은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죄사함에 대한 언약이다. 사람들도 진실하게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진실한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24시간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들이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조금만 복음과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응답과 해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죄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못했던 상황을 기록해 보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목상한다면 흑암은 꺾이고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성공, 실패, 복음적인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과 부족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실하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70인 제자,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